

| 글. 송하엽_ Song, Ha-yub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현실은 역사감(歷史感)이다

<장소의 재탄생 : 한국근대건축의 충돌과 확장> 展을 보고

Reality is a sense of history
- An exhibition review <Rebirth of place: Expansions
& Conflict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사람 머리도 채 내밀 수 없을 만큼 좁은 직사각형 창은 이 건물을 마치 미술관이나 고급 호텔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건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로 불렸던 김수근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담아 설계한, 살아 있는 건물입니다.”

김근태_ 저서 『짐승의 시간』 중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뒤집혔죠 / 다들 꼭 잡아요
잠깐 사이에 사라지죠”

서태지_ 노래 ‘소격동’ 중

2009년 서울현대미술관의 시작을 알리는 기무사의 <신호탄>展은 용도가 폐기되며 새롭게 미술관으로 탈바꿈할 건물에 대한 오마주와 기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서술 퍼런 군부독재의 심장을 꼬집는 충격적인 작품들이 있었다. 집권자의 침실과 욕실을 재현하여, 여배우에 대한 탐닉을 풍자한 침대와 장미그림을 놓고, 창녀촌을 분홍색 전경방패로 보호하는 모습 등등 타락했던

권력의 역사를 비꼬았다.

언제부터 우리는 복고, 레트로, 빈티지 등에 익숙해졌지만 <장소의 재탄생 : 한국근대건축의 충돌과 확장>展(이하 ‘충돌과 확장’展)에서 소주제로 다룬 ‘권력의 이양’은 근대화의 주도적 장소와 과거 폭력정치의 장소가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양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많지만, 우리 공간들에서는 유독 지배계층의 허와 실이 느껴진다. 수탈, 횡포, 독재, 고문, 감시 등등의 기억이 건물의 이미지와 장소의 풍경과 겹친다.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문화를 배우는 곳으로 쓰이지만, 세상물정을 알게 될 즈음 벽면에 쓰인 사실을 아는 게 나을 것이다.



사실 제일 아픈 기억의 건물은 이 전시에서 다루지 못할 정도로 아련하다. 그 중에서도 남영동 대공분실, 이곳은 허망함과 죄송함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곳이다.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고 있지만 필자는 여전히 가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많은 민주인사들이 극단적 트라우마를 겪은 곳이다. 고문소에서 인권센터로 극단적인 ‘권력의 이양’이 발생한 곳이지만, 그곳의 건축 껍데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문이 굳게 닫힌 저녁의 모습은 바늘귀 하나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검은 철문이 가리고 있을 정도로... 건물 그 자체는 당시의 수준보다 꽤 치밀하게 지어져 있어 현재도 보존 가치는 충분하지만, 경찰청 인권센터라는 사실이 그 당시의 것과 극과 극으로 반대여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권력의 이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건축은 껍데기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구에서 하나의 결

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전시는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독단에서 벗어나는 건축적인 따스함을. ‘풍경의 재현’에서는 철도역, 신문사, 극장, 법원 등의 근대화의 기관들이 현대의 문화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며, 어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근대인에서 현대인으로서의 권력의 이양을 보여주고 있다. 겉모습이 바뀌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하면서, 근대의 신선함은 놀랍게도 현대의 빈티지로 차용되고 있다. ‘풍경의 재현’은 근대의 풍경이 시간의 흐름의 질서를 보여준다는 해석을 하지만, 언젠가는 건물의 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는 장도 필요할 것이다.

‘권력의 이양’이 사회제도에서의 힘의 전이를 보여준다면, ‘풍경의 재현’은 일상의 거리에서 건물이 변모하는 시간의 전이를 보여준다. 인간의 제도와 자연의 시간, 즉 권력과 풍경의 주제는 공간과 장소를 형성하는 양대 요소임을 재확인 시켜준다.



나머지 주제인 ‘사라진 기억’, ‘주체의 귀환’, ‘연결될 미래’는 건축 자율성에 대한 의도가 담겨있다. 건물이 사라지고 잊힌 건물이 다시 돌아오며, 건물이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으로, 가치체계의 개입보다는 유형문화의 최고봉인 건축, 그 자율성에 대한 재확인이다. 지금은 사라진 건물들의 파사드가 전시장의 입구에 무덤과도 같은 느낌의 볼트(Vault) 벽에 생생한 느낌의 선들로 살아 있다.

‘주체의 귀환’은 잊힌 건축사의 작품이 환생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건축보존의 테크닉으로 재사용(Adaptive Reuse)에 의해 과거 건물의 구성을 최대한 많이 변경시킨 예들이다. 잊힌 건축사의 작품은 귀환하면서 새로운 작업에 의해 자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버려진 고목에서 꽃이 핀 것처럼, 절름발이였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새로운 건축의 보철(Prosthesis)이 두 발 똑바로 걷고 있는 모습이다.

‘연결될 미래’는 건축 인프라(Architectural Infrastructure)를 도시 유형문화의 핵심에 놓고자 한다. 60년대 말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 고층 사무실, 대형병원 등은 70년대 이후 돌격건설의 시대를 훨씬 앞선 메가 스트럭처(Mega Structure)를 보여준다. 서양으로 보면 후기근대주의(Late Modernism)의 시대이지만, 우리에게서는 근대 전성기의 시대다. 생소한 큰 덩치의 건물들이 생기면서 한국의 건축이 발전해가는 시기로, 지금의 중견건축사들이 당시의 대가들 밑에서 수련하며 만든 결과다. 대표적인 건물이 서울 중구에 있는 세운상가다. 최근에 서울시 총괄건축가 송효상 씨가 남산으로부터 종묘를 잇는 보행자 공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곳으로, 설계자인 김수근의 원래 의도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세운상가의 재개발은 주변 동네를 남북과 동서로 이으며, 지역주민의 역사감(歷史感) 넘치는 생활의 느낌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방문하고픈 보행로로 역할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충돌과 확장>展은 재생과 창조를 주제로 시의적절하다. 2014년 현재 서울시는 건축적 재생을 통한 마을만들기와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유지, 보수, 재사용은 무슨 의미일까? 뼈뺌하게 본다면, 현재 복원 및 재생을 추종하는 현상은 윤리를 넘어서 미학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 작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글에서도 그녀도 옛 건물의 필요를 단순히 시간의 미학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비전문가로서 느낀 부분이다(그녀는 역사이론가나 도시건축전문가는 아니고 사회운동가 또는 작가였다). 재생과 복원, 재사용은 유행이 되었을 때나 원래의 형태를 고증만 할 때, 의미 파악 내지는 진실한 역사감 형성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생과 적절한 창조의 결합이 답인가? 일견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용도와 현재의 사용이 시간적 충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껍데기 미학일 뿐이다. 그 시간적 충돌을 통해 건축이 건드려야 할 것이 역사감이다. 온고지신하며 새롭게 변모하려 한다면 어떤 역사감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건축은 현실을 충만한 역사감으로 채우는 뇌관이 될 것이다. ▣